

불이(不二)의 세계

| 맨디 솔크 | 심정요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내면의 분열을 떠난 자리에서 순수한 '무집착'과 내적인 우월감이라는 덧에 빠진 '초연함'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비이원성(non-duality)이란 겉보기에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망상을 꿰뚫어보는 것이다. 분리된 개인이나 사물은 없다. 우리가 서로 분리된 존재라는 믿음은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신의 마음(Mind/God)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존재(Being)라는 현미경으로 온전한 전체를 본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사물의 일부분 밖에 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성서의 구절 ‘희미하게 보인다’(through a glass darkly)의 의미이다. 인간의 관점은 제한되어 있으며 진정한 상황 - 혹은 현실의 밝은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인간의 관점은 어떤 상황의 진실도 거꾸로 바라보며 확실성이 있는 곳에서도 의심만을 본다. 아주 분명한 빛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두움과 숨겨진 면만을 본다. ‘완전한 하나됨(all-One-ness)’ 대신 ‘홀로 있기(alone-ness)’를 본다. 풍성하고 신성한 공급만이 있는 곳에서 가난과 부족함만을 본다. 사랑만이 있는 곳에서 두려움을 본다.

아무리 부정적인 모습을 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존재란 항상 고요하며 거기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늘 분주하며 부정적인 연상을 계속 떠올린다. 이 연상은 언뜻 분리되어 있으며 고통을 안겨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 뿐이다. 장엄할 정도로 완벽하며 고요한 참된 존재 말이다. 존재를 참고해야만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기참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두텁게 시야를 가리는 생각의 ‘눈속임’을 피할 수 있다. 이 생각은 흔히 ‘장막’이라 알려져 있다. 우리는 결국 생각을 넘어서 보아야 한다.

생각을 넘어선 그곳에는, 단지 하나됨 뿐이다.

그러므로 ‘깨어난 스승/구루’란 존재하지 않는다. ‘해방’이란 어떤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 상태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미 그것인 ‘존재하기’를 배울 수 있겠는가?

고통이라는 표면을 넘어서

고통이란, 실체(Reality) 속에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내가 말한 실체란, 존재, 하나됨, 진정한 본성, 신을 가리킨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고통 받는 상황이 하나같이 매우 현실적이고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영(Spirit)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의 시각 너머에서 훼손되지 않은 존재의 뿌리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 언어에서 ‘선(Good)’으로 번역되는 ‘신(God)’은 고통의 외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통은 오감에 의해 목격되고 느껴진다. 반면, 하나됨과 진정한 근원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선과 악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으며 이토록 찬란하고 완벽한 있음(Being) 안에 ‘선’과 ‘악’의 개념은 설 자리가 없다. 이 둘은 인간의 판단일 뿐 근원과는 전혀 무관하다. 존재(Being) 안에서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꿈에서는 모든 것이 일어난다. 생각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개인, 각각의 상황과 재앙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듯하다.

얼핏 보기에 비극적인 지진은 희생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러나 실체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존재(Being)의 모든 면이

드러나고 그 각각의 측면이 각각 다른 현실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돌무더기에 갇힌 사람에서부터 거실의 TV를 통해 뉴스를 보는 나, 타인을 돕는 자원봉사자나 의사, 뉴스를 보지 않아 이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는 현실은 모두 제각각이다.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들의 현실 중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우리집 현관 밖에서 어떤 남자가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웃에게 고함지르고 있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광경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나중에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다가왔던 어떤 이웃은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자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백일몽은 폭력적이고 믿을 수 없는 어떤 남자를 보여주었다. 내 꿈은 이러한 영상을 붙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집 현관 밖에 그 난폭한 남자가 진짜로 있었는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어찌 근원이나 존재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고통은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더라도 언제나 인간의 이야기이며 신과 선의 존재 안에 깃든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맨디’라는 꿈에 관하여

처음 이 글을 쓰려했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과거 혹은 ‘역사’가 있었다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라는 개념 자체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물이다. 그러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맨디’라는 주인공과 마음이 만들어낸 ‘과거’의 개념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쓰는 것은 올바

른 방식이 아님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과거’, 혹은 ‘내가 어렸을 때’를 언급하는 모든 말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현재 생각일 뿐이다. 시간이 없으니 과거도 없고, 미래와 ‘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정’도 있을 수 없다. 이는 모두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단지 재미를 위해 쓰는 것 뿐이다. 아무튼 계속 가 보자!

‘아주 어렸을 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이 세계는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인가? 나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를 꿈꾸고 있는가?”였다.

‘몇 년 후’ 답을 찾아 수많은 명상 학교를 돌아다녔다. 초월명상, 담마, 라마(Rama), 카르마, 라마(larma) 등...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선과 불교, 일본의 선불교를 공부했다. 한때 불교 교사가 되려고 공부했고 이어 도교 교사도 공부했다.

다음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를 공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대단히 흥미로운 분야로서 비이원적 관점을 다루는 듯 보였다. 창시자인 베이커 에디 부인(Mrs. Baker-Eddy)은 신을 천상에 있는 위대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았다. 대신 신을 동의어 일곱 가지로 묘사했다. 신은 사랑(Love), 생명(Life), 진실(Truth), 마음(Mind), 규율(Principle), 영혼(Soul), 영(Spirit)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존재의 상태’를 언급한 대목도 마음에 든다. “물질(matter) 안에는 생명도, 진실도, 지성도, 실체도 없다. 모든 것은 무한한 마음이며, 무한한 마음의 현현, 신의 무한한 현현이 전부다. 영은 불멸의 진실이다. 물질은 필멸의 오류이다. 영은 실재하며 영원하다. 물질은 실재하지 않으며 일시적이다. 영은 신이며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질이 아닌 영적 존재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통해 ‘20년간’ 부지런히 연구해온 결과 분리된 개인이란 없다는 것, 분리란 그저 ‘필멸의 마음’이 지어낸 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연구를 통해 머릿속으로는 더없이 명확하게 이해했지만, ‘이것’을 통찰하는데 방해 요인도 바로 그 분리의 명확성이었다. 통찰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마음이 만든 틀을 훌쩍 벗어나 확장된 시야로 ‘보는(Seeing)’ 것이 필요했던 까닭이었다. 처음부터 단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이것’은 마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므로 단순히 마음만 포기하면 된다.

또한,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상당량의 집중적 연구,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특정 이상에 대한 믿음, 담배, 술 등 기호품 소비 절제 등을 요구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마침내!) 담배도 끊기는 했지만 독선적인 규칙을 강요하는 조직과 종교는 좋아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들은 분명히 규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속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도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비이원성에 관한 많은 것들을 정확히 포착한 데 대해 엄청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떠났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나갔다. (여전히 깨달음을 얻을 ‘나’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런 뒤에’ 나는 ‘지금에 존재하기 로드쇼’에 참여했고, 한 번에 3분 정도 ‘지금에 존재’할 수 있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쏟는다면!

마침내 나는 ‘비이원성’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었다. 마치 굶주린 듯 읽어치웠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난 뒤 책들 중 한 권을 반쯤

어느 날 아침 나는 깨어났다. 침대 위의 이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침대 위 몸도 '있음'의 일부였다. '나'가 존재하는 곳이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이기도 했다.

입었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깨어났다. 내가 경험했던 나라는 것이 없었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있음'만이 남아있었다. '있음'은 동시에 어디서나 보였다. 침대 위의 이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침대 위 몸도 '있음'의 일부였다. '나'가 존재하는 곳이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이기도 했다. 이 현상은 아침 내내 지속되었는데 꽤 무서웠다. 마치 미쳐가는 것 같았다. 내가 알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동네 주변을 걸어다닐 때 사람들은 내가 '안', 혹은 '집'에 있기를, 적어도 내 몸 안에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는 몸 안에 든 사람인 척 연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타 경험했던 것처럼,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보니 몇 년 전 하마터면 죽을 뻔 했던 오토바이 사고가 떠올랐다. 나는 옆길로 빠져나가려는 자동차와 부딪쳐,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와 차체 뒤에 곤장 떨어져 자동차 앞유리로 굴렀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모두 완전히 박살이 났다. 길바닥에 등이 닿은 채 쓰러진 나는 언뜻 죽은 것처럼 보였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공포로 넋이 나가 있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은 매우 달랐다.

나는 위로 떠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물이 점차 뚜렷하게 들어왔는데 이들 모두는 견고한 실체가 아니었다. 살아오면서 내가 걱정했거나 죄책감을 느꼈던 것들, 중요시했던 것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들, 돈, 연인, 직업, 집, 전쟁, 잔인성, 사랑과 증오, 빈자와 부자 등등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나에게서는 계속 웃음이 나왔다. 커다란 해방감이 느껴지는 한편 얼마나 우습던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곧이어 누군가 나를 ‘내리쳤고’ 나는 눈을 떠 누운 채로 충격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미소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고통도 전혀 없었고, 상처도 없었다. 심지어 멍들거나 후유증도 없었다.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다. 어떤 면에서 그날 나는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것은 육체가 아닌 겉보기 자아(apparent SELF)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 혹은 ‘바라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앞에서 썼던 ‘아침에 일어났던’ 경험처럼 말이다. 그 뒤 한동안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가 짧게 경험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왔다. 이를테면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내가 투명해졌다는 것, 즉 ‘나’라는 물질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든지 피아노를 치다가 문득 연주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며 그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처음 ‘짧은 경험’이 몇 번 지나고 나자 깨달음 추구에 대한 흥미가 점차 사라지고 모든 곳에 깨달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각성은 어디에나 있었다! 추구하는 마음이 물러난 자리에 ‘살아있음’이 들어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마침내 나는 내 중심의 ‘나’라는 인식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비이원성에 관한 책은 더 이상 흥미가 없었

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순간을 즐기게 되었다. 머리를 감을 때, 차를 운전할 때, TV를 볼 때, 개와 산책할 때 등등 무슨 일을 하든 말이다!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든 한결 편안했다. 결정할 ‘나’가 없다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른다. 일은 단순히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마치 비누 거품처럼, 걸보기 ‘나’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있었다. 그러나 글을 쓰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글쓰기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내가 무슨 여정을 거쳐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겐 그것이 아주 명확하다. 나는 ‘비이원성’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공명하는 느낌을 받았고, 안심이 되었으며 ‘집에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관점을 보여줄 뿐이다. 사실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방법도 여정도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환상이며 꿈이다. ‘영적인 길’은 가보지 못했지만 단순히 ‘깨어난’ 적이 있거나 언뜻 경험한 사람은 수두룩하다.

이토록 찬란한 ‘존재’, 거대하고 한계가 없는 ‘있음’은,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 마음과 생각은 텅을 놓는 데 매우 익숙하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비이원성 모임이나 비이원성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일상에서 ‘초연해진(detached)’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마침내 ‘찾아냈으며’ 이제 ‘그것’을 전부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삶은 달라졌다—연해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초연하다는 것은 존재의 모든 것이 아니며 존재가 가리키는 것을 잘못 읽고 잘못 들음으로써 오해

한 것이다. 마음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노력한다-존재란 결코 이해될 수 없다. 이해란 그저 또 다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추구에 가깝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이제 나는 비이원성에 ‘속하게’ 되었어요. 이제 일상에서 초연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없어요. 그 애들의 사소한 대화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거든요. 이제 남자친구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깐요.” 바로 이것이 생각이 쳐놓은 덫이다. 생각은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마음을 되살리며(그러나 결코 답을 찾지는 못한다) 약간의 우월감을 즐긴다. 마음이 우월감을 좋아하는 이유는 분리감을 지속시켜주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우월한 자의 태도를 반영할 때 마음은 분리감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난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 내겐 깊이가 있는데 너는 얕팍하고 가벼워. 네 수준은 나보다 한참 아래지.” 등등...

순수한 존재 안에는 아무도 없다. 개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애착없음(non-attachment)이 자연스럽다. 이는 ‘초연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초연함’이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고약한 덫이다. 초연할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다.

무집착은 순수하고 참되며 살아있고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다. 초연한 상태는 물들어있고(부자연스러우므로) 거짓되며, 죽어있고 기쁨 없는 상태이다. 마음은 초연한 태도를 고안하여 자신이 깨달았다고 느끼게끔 속이는 데 아주 능란하다. 이는 ‘사막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어떤 ‘상태’로서 많은 영적 교사들이 종종 ‘깨달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존재와 전혀 무관하다. ‘아무도 아닌 사

람(no-one)'이 '있음'을 통찰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이것, 오직 이것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의 공간을 가득 채운다. 그러니 어떻게 '지금'에 도달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개념이다.

아래의 짧은 이야기는 (마음이 만든) 존재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무집착과 초연함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짚어줄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언뜻 과거처럼 보이는 일에 관한 현재의 '기억'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남편은 생전에 솜씨가 뛰어난 아마추어 도공이었어요. 함께 지냈던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불교와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어느 날 남편이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어 선물해줬고, 나는 그것을 애지중지 아꼈지요.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 지금 살고 있는 헵턴 브리지에 이사 온 뒤 그 불상을 정원에 놓았어요. 아주 멋지게 보이더군요. (그건 그이가 남긴 도예품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품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나가보니 불상이 철책의 못에 찢려 속이 텅 비고 머리가 잘린 채 구석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글로 보면 아주 우스울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 불길하고 끔찍했어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강렬한 감정들이 마구 솟아올랐어요. 충격, 분노, 실망, 슬픔 등등... 이 감정들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흥분마저 느껴지더군요. 이를테면 충격이 올라왔을 때 '충격'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것으로 가득 찼어요. 거기에는 충격이 아닌 것이 들어설 단 1mm의 공간도 없었어요. 충격이 전부였어요... 충격이 '그것'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붉게 타오르는 분노가 솟아올랐죠.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모든 공간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죠. 분노가 전부였어요. 분노가 ‘그것’이었죠!

이 생생한 감정들은 온전히 살아있었어요. 느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일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안’에서 그걸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마치 아무도 집에 없는 것처럼... ‘느낌’은 있으나 ‘느끼는 자’는 없는 것이죠. 분노, 슬픔, 눈물 등등... 아무 것도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억누를 사람이, 느낌을 부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감정은 허용되었어요. (‘아무도 아닌 사람’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은 감정들이었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열림을 통해 감정은 연소하기 시작했고 몇 분 만에, 아니 대부분 몇 초 만에 타버렸어요. 마치 ‘자연발화’와도 같았죠. 갑자기 폭발하더니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죠. 거품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나’가 있었다면 이 상황을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여전히 누군가 ‘안’에 있다면 마음은 여전히 초연하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연함은 감정을 부자연스럽게 억누르는 상태이다. 그 게임은 이렇다. “‘나’는 분리되었다.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상태로서 ‘왕관을 얹은 척 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 상태에는 자신이 초연해지기로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며 그 결과 그는 생각이 만들어낸 죽어 있고 기쁨 없는 세계에 살게 된다. 초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가장 강렬하게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여전히 어딘가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스파게티를 먹는 것,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것, 변기에 앉아있는 것, 설

거지를 하는 것 등등... 당신은 이 말을 무수히 들었을 것이다. 나도 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은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집을 쿵쿵 두드리는데 완전히 싫증을 낼 것이다. 마음이 포기하는 순간, 남은 것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빛나며 수정처럼 명확하며 축복을 받은 신성한 '현존(Presence)'이다. (끝) 

- 이 글은 'mandisolk.com / Non-Duality'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역자 | **심정오** | 지금여기 번역위원. 덕성여대 영문과 졸업. 전문 번역가